

브라질 정부의 국내 경기회복 지원대책 주요 내용

- 브라질 정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브라질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책으로 사회경제개발은행 BNDES 은행 대출이자 축소 및 공산품 세금(IPI) 감세를 '09년 3사분기까지 연장(7월 만료)하기로 발표
 - 브라질 정부는 BNDES 은행의 장기 대출 금리(TJLP)를 6.25%에서 6%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, 감세연장조치로 약 R\$33.42억 헤알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
 - 연방 세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'09년 1월에서 5월까지 세금 면제로 인한 연방정부의 지원실적이 약 109억 헤알을 달하는 것으로 설명
- 실제 이러한 브라질정부의 감세조치는 브라질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대 이상의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
 - 자동차의 경우 '08년 11월 최악의 수준이었던 자동차 판매량이 '09년 6월말 현재 약 140만대를 상회하여 전년수준을 능가하였으며 연간 판매량이 전년도 판매량인 282만대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
 - 냉장고, 세탁기, 가스레인지 등 가정용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에도 지난 4월 감세조치 발효 후 매출액이 약 30%이상 늘어난 것으로 평가

◆ 품목별 주요 감세내용

- 1,000 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공산품세 7% 완전 면제
- 1,000~2,000 cc 가솔린 자동차는 13% ⇒ 6.5%로, 플렉스 차량 (가솔린+에탄올)은 11%⇒5.5%로 각각 50%씩 감세
- 냉장고 15%→5%, 세탁기 20%→10%, 가스레인지 5%→ 0%로 감세

□ 브라질 플라대통령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감세조치를 9월말까지 유지하고 10월부터는 서서히 감세폭을 줄여나가 연말까지는 세계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

- 기도 만떼가 브라질 재무부장은 이번 세금감면 및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브라질 경제가 2010년에는 4.5%, 2011년에는 5%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
- 루시아노 브라질 BNDES 은행장은 기업들이 이번 저금리대출을 활용하여 중단된 투자를 실행토록 독려하는 한편, 생산용 기계 및 기구 구입에 대한 장려책이 한정된 기간만 실시되기 때문에 '09년 하반기 중 관련 기계 및 기구 구입을 권장

□ 한편, 브라질 세무당국은 자동차, 가전제품 등 공산품의 판매량이 이미 상당부분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 대책을 계속하는데 대해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압박 위험 증가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중

- 실제 연방정부의 세수 감소는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축소된 상황에서 특정부문 세금감면으로 정상적인 세수의 확보가 어려워진 상태
- '09년 1월~5월의 연방 세수입은 R\$ 2,697억 헤알로 전년 동기 대비 6.9%가 감소하였으며, 특히 자동차 IPI는 81.9%가 감소

'09년 1월~ 5월 연방세입 현황

연방 세입	금액 (R\$백만)	전년대비 증감률(%)
수입세	6,683	2.3
IPI(합계)	11,496	-29.7
자동차 IPI	487	-81.9
소득세	79,857	-5.6
금융거래세 IOF	7,193	-14.1
사회기여세 Cofins	43,453	-14.0
PIS/Pasep	12,009	-9.7
순수익세 CSLL	19,881	2.1
연료유통세 Cide	819	-76.54
사회 보장세	77,043	6.06
기타	11,257	-
합계	269,691	-6.92

자료 : 브라질 국세청

- 한편, 브라질 자동차산업 등 관련 산업계에서는 브라질 경제의 뚜렷한 회복세 시현을 위해서는 '09년말 까지 감세조치를 연장해야한다고 주장
 - 건설업계의 경우 현재 브라질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주택 100만호 건설 등으로 인해 자재수요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감세대상을 현재 30개 품목에서 50개 품목으로의 확대를 주장
 - 또한, 브라질 전기전자 메이커 협회인 Eletro협회에 따르면 5월 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20% 증가하고 있지만, 세금이 절감된 것은 1.74억 헤알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지속적인 시행이 필요함을 주장

< 사용파울루 사무소 제공 >